

■ '화쟁위원회 4기 출범' 앞으로의 갈 길은



지난 19일 화쟁위원회 4기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함께 환담했다.

바깥에선 '호평' 내부분쟁은 '미진' '외부현안에 집중' "독립기구 승격"

종단의 갈등조정기구인 화쟁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4기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새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체 위원의 숫자가 15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종령 개정을 통해 화쟁위원회와 기획위원회로 나누었던 기존 체계를 화쟁위원회로 통합한 점도 달라진 면모다. 그간 화쟁위는 '명망가' 중심, 기획위는 '활동가' 중심으로 이원화돼 움직였다. 곧 실제로 열심히 일할 사람을 전면 배치한 것이 4기의 특징이다. 운영위원회도 설치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화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열어 화쟁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의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되기 마련"이라며 "소수의 권력끼리 은밀하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보려고 했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령 기구에 불과한 화쟁위의 임지 자체가 한계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혹자들은 "화쟁(和諍)이란 가치는 아름답지만, 대다수가 총무원장 스님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한상군 위원장이 시위 관련 역대 최고령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고군분투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종도들의 여론 수렴장구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로 옮겨가고 대중공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 보류나 중앙종회 직선제특위 구성 등을 이끌어내면서 화쟁위의 조정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육상육이(陸上陸下)란 말처럼 화쟁위도 방향을 다시금 정립해야 한다"는 귀뜸이다.

4기 화쟁위 부위원장에 선출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다. "중앙종회든 100인 대중공사든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시스템이 갖춰진 마당에 화쟁위가 굳이 모든 갈등을 떠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절라 말했다. 여하튼 '한상군 사태'에서 비폭력적 갈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들으며 화쟁위는 일반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일정하게 얻어냈다. 결국 "교단 바깥의 굴직한 다름을 중재하는데 매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나머지 역량은 화쟁의 이론훈을 다지고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할 거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생각도 엄존한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집행부와 독립된 중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종단과 무관한 중립적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면 진정한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기의 특징은 '일하는 문화'를 지지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깊이 고민하고, 서로의 과오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한발씩 물러나야만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

정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천주교 영리법인 10년새 160배 성장

총무원 '사업부' 역할과 과제

가톨릭은 불교계 보다 앞서 수익사업을 펼쳐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종교계 수익사업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평화드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지난 2004년 100% 출자하는 형태로 평화드림을 설립해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의료 등의 불품구매, 건축, 상조, 음식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2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초기 자본금은 약 7억원, 직원 4명의 미니조직으로 시작한 평화드림은 출범 3년 만에 매출 164배, 직원은 36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평화드림의 성공비결은 무엇보다 서울대교구의 일원화된 조직체계에 기반한 운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성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학교법인 및 종단에 다시 환원하는 구조를 확립해 종단 수익사업과정에서 불거지는 시비도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산하 대학과 병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평화드림에 맡겨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평화드림은 새로운 사업 분야의 모색과

이웃종교 수익사업 사례

가톨릭학원 출자 '평화드림' 의료물품 건축 상조 등 사업 지난해 2000억원 매출 올려 수익금 학교법인·교단 환원

설립을 통해 그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09년엔 건축사업본부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건설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식회사 평화종합건설을 설립했다. 평화종합건설은 평화드림 내 건축사업팀으로 출발, 이후 건축사업본부로 승격하면서 병원 및 성당 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병원과 교회건축 분야에서 축적된 시공경험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2009년에 건설 회사까지 설립한 것이다. 앞서 2007년엔 IT기업인 평화IS를 조직하기도 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2011년 총무원 재무부가 연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천주교 수익사업체계는 우리 종단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종단 산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한 수익사업구조, 외부로 새어나가는 재원을 안으로 돌리는 순기능적 요소 구현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이익추구는 피하면서 중요한 물질, 정신적 자산이 되는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 각 산하기관 및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적 성과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공회는 1998년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시작,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국 30개 지부를 통해 하루 1만2000여명의 결식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익금 전액을 무료급식 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 식당인 국밥집을 열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통일교 또한 리조트, 여행사,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부장 각은스님은 "가톨릭의 경우 현재 수익사업이 1000~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종단이 못 해낼 이유가 없다"면서 "스님과 불자들이 우리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을 모아준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기상 악화 속 팽목항 세월호 사고해역 찾은 '조계종 사회노동위'

"미수습자가족 품으로..." 기원 가족들 "간절한 기도 위로된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26일로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참사 현장에 찾아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인양을 기원했다.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도철삼님을 비롯해 김·우담·해문·해강·해찬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 미수습자 가족 등 21명이 지난 20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아 인양 촉구 기도회를 병행했다. 사회노동위는 열흘 전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양 촉구를 위한 72시간 철야 정진 릴레이 기도를 한 바 있다.

사회노동위는 이날 높은 파도가 일고 강한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나가 인양 핵심 작업인 '선수들'을 중대한 선택지 선과 사고 지점을 둘러봤다. 사고해역에 배를 띄운 스님과 재가자들은 830여



세월호 인양 작업이 26일로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참사 현장에 찾아 파도가 높은 배위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인양을 기원했다.

일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려운 바다 속에 있는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2시간가량 관세율보살 정근과 염불 기도를 올렸다. 바다 위에서 기도를 끝내고 팽목항으로 돌아온 후에는 '기다림의 등대' 앞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스님들과 함께 승선한 단원과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72시간 철야 정진

기도로도 힘을 많이 얻었는데 이렇게 스님들이 사고 해역까지 나와 또 다시 간절한 기도를 해주 위로가 된다"며 "기도의 힘으로 인양 작업이 잘 될 것 같다"고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해찬스님은 "기도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돼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진상규명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Advertisement for the 2017 calendar.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calendar cover and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calendar designs. Text includes '불기 2561년(2017년) 달력은 조계종출판사로 주문하세요!!', '2017 CALENDAR', and '조계종출판사'.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the calendar's content and pricing.